

News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소진... "7월 재개"

조선비즈

우리은행은 최근 모든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2분기까지 일시적으로 중단. 금융당국이 설정한 가계 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분기 별로 한도를 관리
4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1.5조원으로, 전년 동기(15조1203억원) 대비 42% 증가. 전세대출 수요 폭증으로 4월 말 이미 2분기 한도 뚫이 소진

빚 탕감·신용 사면... 금융 혼드는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4월 이후 여권 인사들의 법안발의는 은행빚 탕감, 신용불량자 사면, 소외계층에 저리장기대출, 한국은행 책무에 고용안정 추가, 청년층 LTV 90%로 상향이 주 이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가계부채관리방안과 정면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 가계 이자부담 증가

파이낸셜뉴스

4대 시중은행의 7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7~3.62%로 상승. 지난해 7월 1.99~3.51%와 비교시 하단이 0.58%p 상승
1000조원을 돌파한 은행권 가계대출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 증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단계로 들어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마통' 줄이는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아시아경제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부터 일제히 사용률에 따른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정 정책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번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정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으로 해석

미래에셋생명, 토스와 손잡았다... "소액보험 판매 확대"

머니S

미래에셋생명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지난 4월 소액보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제휴
판매 상품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비대면 보험 영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 금융 플랫폼은 비대면 시대에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수단

생보-손보 넘나드는 합종연횡 대세

파이낸셜뉴스

보험시장이 재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시대를 맞아 생보사와 손보사간 상호 영역을 뛰어넘어 사업협력을 하는 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화생명은 판매조직 분리로 출범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생보업과 손보업을 진행하려는 취지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차보험 손해율 소폭 증가

이데일리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79~80.5%를 기록. 전달 76.2~77.5% 대비 약 3%p 상승
이는 행락철 영향 때문. 차보험 손해율은 겨울과 설 연휴가 있는 2월까지 안 좋다가, 3월 이동이 없어지면서 4월 행락철에 외부활동이 증가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인다.

'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준다

한국경제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보장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